

가정문제 '가족치료' 관심 높다

고부간 갈등·자녀양육 등 구성원 함께 문제 해결

신연숙 기자

최근 들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구성원들이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 갈등을 안고 있는 가족들이 1~2주일에 한번씩 한자리에서 만나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 스스로 해결해가도록 이끄는 가족치료는 핵가족문화가 안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뿌리내리는 추세다.

결혼한 지 3년째인 김아무개(29·여)씨는 말도 안하고 지낼 정도로 심각한 고부간 갈등을 가족치료를 통해 서서히 풀어가고 있다. 시어머니와의 성격 차이로 시댁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전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고부갈등이 심각했지만 두달 전부터 가족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요즘은 아이 문제를 시어머니에게 저하해 사인도 하고

찾아가 뵈기도 한다"면서 "가족치료 덕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됐다"고 좋아한다.

맛벌이하는 윤·씨씨 부부도 고3인 아들이 가출을 밥먹듯하고 새벽 3~4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지난 4월부터 가족치료를 받고 있다. 집밖으로 나도는 아들을 보면 야단부터 치던 자신들의 태도가 아들을 빙가게 만든 원인이었음을 안 부부는 "알게 모르게 아이를 소외시켰던 가족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가족간에 유대감도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온가족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가족치료 덕분에 아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아 스스로 귀가시간을 앞당기고 대학입학준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 부부는 요즘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

김종옥 가족치료연구소 김종옥 소장은 "가족 갈등은 막고 보면

가족 전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이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족끼리 풀려고 해도 점점 꼬이기만 하고, 악화되기 십상인 가족갈등은 가족치료 전문가가 가족간의 불만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고 갈등을 잡아주는 식으로 조금만 개입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면 가족간의 유대도 돈독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가족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김종옥 가족치료연구소=714-7178 △한국가족치료연구소=652-2862 △서울신학대 가족치료상담소=(032)·666-9192 △기독교 가족사역연구소=320-0282 △한국정신건강상담연구소=514-0776 △한국인성심리상담연구소=335-0971 ~2 △강남 상담 및 심리치료소=517-3863 △한국심리교육·상담센터=599-9150